



KIA 日 전훈캠프를 가다

미야자키=김여울 기자



슬라이더·체인지업 일품 용병 리마, “V10 내손에”

KIA 타이거즈의 '특급 용병' 호세 리마가 국내 마운드 점령을 위한 성공적인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리마는 15일 오후 일본 미야자키 오쿠라가하마 구장 경기장에서 진행된 시뮬레이션 훈련에 참가해 첫 라이브 피칭을 선보였다.

다른 선수들보다 빠른 훈련 페이스를 보이며 조범현 감독을 흡족하게 했던 리마는 이날 마운드에서도 뛰어난 제구력과 위력

적인 공을 선보였다. 27년 백남버를 단 리마가 마운드에 올라서자 소란스럽던 경기장은 이내 잠잠해졌다.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모두 마운드에 시선을 고정해 채 숨을 죽였다. 연습투구로 가볍게 몸을 풀 리마가 타석에 들어선 김상훈을 향해 첫 공을 뿌리자 경기장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타석에 있던 김상훈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어 타석에 선 김중국, 이종범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코치들은 “타구 소리는 안 나고, ‘파콰’미트에 공 들어가는 소리만 난다”며 리마의 투구에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타자의 무릎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제구와 매서운 각도의 슬라이더, 변화 무쌍한 체인지업에 선수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차일목 “볼 끝 지지분해 잠기 힘들어”

명성만큼 자기 관리 철저·쇼맨십 강해

리마의 공을 처음 건드린 선수는 '타격왕' 이현근. 처음으로 리마의 공을 커트한 뒤 유격수 땅볼을 기록한 이현근은 “공이 무겁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불펜에서 유심히 리마의 공을 지켜보던 서재응도 감탄사를 쏟아냈다. 포수로 나선 차일목은 “볼 끝이 지지분해 공을 잡는 것조차 힘들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과짜 투수’로도 유명한 리마는 마운드 위에서 과성을 지르는 등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웃음을 선사하면서 뛰어난 쇼맨십도 보여주었다.

이날 45개의 공을 던진 리마는 김일섭, 발대스 등에게 안타를 허용하긴 했지만 자신의 명성을 확인시켜주기에 충분했다. 리마는 전지훈련에 참가하면서 예전에 비해 공을 놓는 릴리스 포인트를 앞쪽으로 끌어내는 등 시즌 준비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철저한 자기 관리와 활발함으로 전지훈련 최고 스타로 떠오른 리마. 내달 8일부터 진행되는 시범경기에서 그라운드와 과짜 투수 리마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단장 'FA 폐지·용병 축소' 상정 결의에

KBO “실현 가능성 없다”

제8구단 창단으로 1년여 곤역을 치른 프로야구가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었다.

프로야구 8개 구단 단장들은 14일 열린 단장회의에서 자유계약선수(FA)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과 외국인선수 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19일 열리는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팀당 2명 외국인 선수 수를 구단별 자유계약이 아닌 트라이아웃을 실시해 팀당 1명으로 줄이자는 방안은 FA를 폐지하는 대신 국내 선수들의 입지를 넓히겠다는 보상 차원에서 나온 방안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프로야구 선수협회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은 물론 현

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도 희박해 논란거리만 확산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상일 KBO 총괄본부장은 “단장회의에서 FA 폐지와 용병 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으나 “이사회에서 FA 폐지 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즉, 단장회의에서 야구단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

KBO는 지난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FA 제도를 완화해 헌법에 명시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현실에서 FA 제도를 없애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은 단장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단장들이 실현 불가능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는 이유는 부도난 현대야구단을 계기로 야구단 운영이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선수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FA 폐지는 각 구단이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려는 자구 노력없이 선수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골프·윈도·호텔·관광·전문기

특별리 회원권

골프장 시설비	골프장 시설비
관주 3,500	실비 1,700
남량주 4,400	골드 1,900
클럽900 6,400	브로얌 2,100

성림빌 (062) 351-0095

KIA 서재응·이현근

올림픽 대표서 제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우완투수 서재응(31)과 내야수 이현근(28)이 베이징올림픽 야구대표팀에서 빠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5일 서재응과 이현근을 각각 부상자로 야구대표팀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7일 대만에서 개막할 올림픽 대표팀 플레이오프에 참가할 후보선수 명단은 34명으로 줄었다.

일본 미야자키에서 전지훈련 중인 KIA는 지난 5일 두 선수가 부상자로 대표팀에 합류하기 어렵다는 공문을 KBO에 접수했다.

미국프로야구에서 돌아온 서재응은 이날 초 미야자키에서 러닝훈련을 하다 왼쪽 햄스트링(허벅지 왼쪽 근육)이 파열돼 재활 중이다. 또 지난 해 타율과 최다안타에서 1위를 휩쓴 이현근은 감상선 질환이 있고 발바닥 부상까지 겹치면서 정상적인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객 열중으로 고생 중인 유격수 박진만과 팔꿈치가 좋지 않은 마무리투수 오승환(이상 삼성)은 대표팀에 정상적으로 합류한다.

야구대표팀 가운데 유승안 벤치코치와 내야수 정근우(SK), 손시현(상무), 투수 장원삼, 조용훈, 황두성(이상 현대) 등 6명은 16일 오전 대만으로 떠나고 김경문 감독과 이승업(요미우리 자이언츠)을 포함한 본진은 22일 오후 출국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주영, 만리장성 격파 선봉

내일 오후 충칭서 동아시아축구선수권 개막전

허정무호가 중국을 상대로 동아시아 축구 정상에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 축구대표팀은 17일 오후 4시30분(이하 한국시간) 중국 충칭의 올림픽스포츠허에서 개최국 중국과 2008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 개막 경기를 치른다.

2003년 첫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2005년에는 꼴찌로 떨어지는 수모를 당한 태극호는 명예회복과 함께 동아시아축구 지존의 자리를 되찾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75위인 중국을 상대로 한국(41위)은 1978년 12월 방콕 아시아게임에서 A대표팀 간 첫 맞대결을 벌여 1-0으로 승리한 뒤 총 26차례 격돌해 15승 11무로 30년 가까이 무패행진을 이어왔다.

한국으로서는 이번 대결에서 무결점 기록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반대로 중국으로

동아시아축구 한국-중국 예상 선발 라인업



서는 일명 '공한증(恐韓症)' 타파에 사활을 걸고 있다.

“만리장성” 중국 격파의 선봉에는 박주영(FC서울)이 나선다. 투톱이든 스리톱이든 박주영은 공격 라인의 축이 되는 선수다. 허정무 감독은 일단 이번에는 스리톱으로 공격 라인을 꾸려 중국 골문을 열겠다는 복안

을 갖고 있다.

박주영은 이번 경기를 통해 오랜 골 가뭄을 해결함과 동시에 ‘골 못 넣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국내파 공격수들의 자존심까지 되살려야 한다.

박주영과 스리톱 라인을 구성할 좌·우 윙포워드에는 염기훈(울산)과 대표팀 공격 라인에 긴급 수혈된 올림픽 대표 이근호(대구)가 선발 출격을 대기 중이다.

미드필드 라인에는 주장 김남일(بت셀 고베)이 오장은(울산)과 중앙에서 호흡을 맞추고, 좌·우에 박원재(포항)와 조원희(수원)가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수비 라인은 스리백을 운용한다. 왼쪽부터 강민수(전북)-조용형(제주)-곽태휘(전남)로 수비벽을 세우고, 골문은 정성룡(포항)에게 맡길 것으로 보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아이스댄싱 환상 연기

15일 경기도 고양시 어울리누리 얼음마루에서 열린 2008 세계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아이스댄싱 프리댄스부문 경기에서 1위를 차지한 캐나다 테사 버츄와 스콧 모이어가 멋진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주 또 일낼까

PGA 노던트러스트 1R 6언더 1위

나상욱 5언더 2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한국 군단의 위용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국프로골프의 간판 최경주(38·나이키골프)는 15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리베라골프장(파71·7천279야드)에서 열린 노던트러스트오픈 첫날 이틀 풀치며 6언더파 65타로 리더보드 맨 위에 이름을 올렸다.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간 나상욱(24·

코브라골프)도 버디 5개를 잡아내며 5언더파 66타로 최경주의 뒤를 이었다.

상위 랭커들이 대거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최경주와 나상욱이 리더보드 상위권을 점령하면서 PGA 투어 시즌 초반 또 한번 한국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가능성을 높였다. FBR오픈 출전 이후 1주간 휴식을 취한 뒤 대회에 나선 최경주는 페어웨이 안착률 57%로 드라이브샷 정확도는 그리 높지 않았지만 78%에 이르는 정확한 아이언샷으로 그린을 공략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남도체육회 총회

전남도체육회는 15일 오전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2008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갖고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확정했다.

스포츠크기

- 16일(토)
 - ▲2008 PGA 노던 트러스트 오픈 2R (05 : 00·SBS골프·SBS골프)
 - ▲2008 LPGA 개막전 SBS오픈 2R(08 : 30·SBS골프)
 - ▲07/08 프로농구(KCC : KTF)(14 : 50·XSPORTS)(SK : 삼성)(14 : 50·SBS스포츠)
 - ▲07/08 잉글리시 FA컵 5R(브리스틀 : 사우스햄튼)(21 : 30·MBC ESPN)
- 17일(일)
 - ▲07/08 잉글리시 FA컵 5R(리버풀 : 반슬리)(00 : 00·MBC ESPN)(맨체스터 Utd : 아스날)(02 : 00·MBC ESPN)
 - ▲07/08 스페인 프리메라리가(4 : 00·KBS N SPORTS)
 - ▲07/08 세리아A(유벤투스 : AS로마)(04 : 30·MBC ESPN)
 - ▲2008 PGA 노던 트러스트 오픈 3R (06 : 00·SBS골프·SBS골프)
 - ▲2008 LPGA 개막전 SBS오픈 3R(08 : 30·SBS골프)
 - ▲2008 아시아 선수권대회 남자(대한민국 : 중국)(16 : 25·MBC)
 - ▲07/08 네덜란드드리그(페예노르트 : 비테세)(22 : 15·SBS스포츠)
 - ▲07/08 잉글리시 FA컵 5R(세필드 : 미들스브로)(23 : 00·MBC ESPN)
 - 18일(월)
 - ▲07/08 잉글리시 FA컵 5R(프레스톤 : 포츠머스)(01 : 00·MBC ESPN)